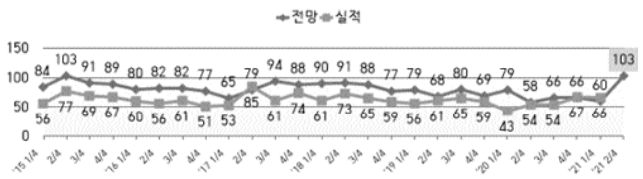
도내 제조업체 체감경기 큰 폭 상승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103으로
2015년 이후 6년만에 기준치 상회

〈전북 제조업 BSI 추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가동 되면서 지난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우리경제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가 도내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103'으로 집계돼 지난 2015년 2/4분기(103)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반대다.

업종별 전망치는 음식료(129), 섬유의복(125), 자동차(125), 종이나무(120) 순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반면, 금속기계(89)와 전기전자(89), 화학(80), 비금속광물(25)은 기준치를 밑돌며 2분기 부진을 예상했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115)과 중견기업(123)이 기준치 '100'을 넘으며 2분기 호전을 예상했고, 중소기업은 98로 불황을 예상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매출 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은 146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대비 64p 상승해 호조를 기대한 반면, 내수기업은 96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39p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6년 만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활황을 띄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효과로 인한 수치적인 상승에만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방역활동과 더불어 기업이 직면하는 대내외리스크를 해결하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깨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청장
"수목원 조성 힘쓸 것"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7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양 청장은 김용하 이사장에게 "세종수목원 조성 경험과 노하우(비법)를 토대로 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잘 담아낸 명품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만금수목원이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제6공구)에 1,530억원을 투입해 151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보건의 날
건강증진 홍보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7일 제 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협회 로비에서 건강증진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의식 동참의 중요성을 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협회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를 나눠주고, 평소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소식지도 배포하는 등 개인 방역 준수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홍보를 진행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있는 홍보캠페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협회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수와 마스크 목걸이를 나눠주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2021년 양봉산업 발전 민·관 합동 밀원수 식수 행사가 열린 7일 부안군 위도면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등 참석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꿀 생산에 가장 중요한 농가 소득원'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서 밀원수 심기 행사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안군,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7일 부안군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밀원수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등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쥐똥나무 등 우수 밀원수 1,000여 그루를 심었다.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은 꿀벌 신품종 육성, 양봉자원 보존, 계획적인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안군 위도면에 설립됐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2018년 전북 진안, 2019년 전남 장흥, 지난해 경북 상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밀원수 식목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꿀벌 우수 품종 생산과 보급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을 밀원수 식재 장소로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홍수명 부장은 "밀원수는 꿀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며, 꿀벌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라며 "이번 밀원수 심기를 통해 국가유전자원인 꿀벌의 안정적인 보존과 우수품종 조기 보급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양봉농가 소득 창출과 양봉산업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 위기 속 1인당 GDP 이탈리아 첫 추월

한국, 경제규모 '톱10'
미국 · 호주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이전 회복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세계 10위에 안착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나라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위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했다. 2019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던 브라질과 러시아도 지난해에는 추월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앞섰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497 달러로 이탈리아(3만1288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지난 6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p) 상향 조정한 3.6%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우리나라(1.3%)가 선진국 그룹(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2020~2022년 3년 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1.8%)가 선진국 그룹(1.4%)을 상회했다.

작년 역성장에 따른 올해 성장률 반등 폭도 우리나라(3.6%)가 선진국그룹(1.1%) 대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성장률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IMF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8개국만이 올해 GDP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예상했다. 이 중 선진국은 미국, 호주, 한국 3개국뿐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선도그룹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 수출·생산·심리 등 지표 개선흐름을 종합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는 분기 GDP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올해 1~2분기 연속 평균 0.6% 수준 성장할 경우 2분기에는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넘을 거라는 분석이다.

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흐름은 우리 수출·투자 회복세 확대에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6.4%로 눈높이를 올렸다. 1조90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은 반영됐으며 8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미반영됐다. 지난해 11월 현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4%p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내 막걸리 생산의 새로운 전기

식품연, 전통누룩 프로바이오틱스 효모 양조에 적용

우리나라 전통누룩에서 효모균주를 분리해 얻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 효모를 막걸리 양조에 적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수입산 제빵용 효모에 의존하던 국내 막걸리 생산에 새로운 전기가 됐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전략기술연구본부 전통식품연구단 이장은 박사팀이 전통누룩인 공병곡으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이 있는 효모를 분리하고 이를 막걸리 제조에 활용해 기능성과 향미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략미생물유전체사업을 통해 지난 7년간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로써, 조선시대 고문헌 19점에 수록된 현대화된 누룩 40여 종과 수집된 전통누룩으로부터 양조용 미생물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사카로마이세스 효모 속의 보울라디 균주는 유산균과 같이 정장작용이 뛰어나 프로바이오틱 효모로 알려져 있다. 보울라디 효모는 체온과 유사한 37℃ 부근에서 활발한 생육활동을 보이며, 위산과 같은 산성 환경에서 잘 견뎌 식후 섭취해도 좀 더 많은 양의 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장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장에 도달한 효모는 프로바이오틱스로서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효모는 구성성분의 약 1/4이 장내미생물의 먹이로 사용될 수 있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한 다양한 다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울라디 효모 미생물을 단독으로 섭취해도 프로바이오틱스 기능과 함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전통누룩으로부터 분리, 선발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보울라디 균주가 장내에 도달해 정착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2배 이상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내 염증 개선 효과가 우수해 프로바이오틱스 효모 균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카로마이세스속 효모가 가진 16~17%의 알코올 생성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조 시 뛰어난 향미 특성을 보여 장내 건강 기능성이 부여된 발효주 제조에 종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연의 김재호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기존 수입산 제빵효모를 사용하던 국내 주류산업에서, 국내 전통누룩 유래 균주를 발효종균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양조효모의 국산화에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연은 이번 연구성과를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보울라디-03 신균주 및 이의 용도로 특허 출원했으며, 효모를 생균 형태로 섭취 가능한 막걸리 제조에 발효종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개발해 서울장수(주)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김윤상 기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 활성화

전북은행, 조폐공사와 업무제휴
이달 중 군산 지역상품권 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자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보인다.

전북은행은 지난 6일 본점 9층에서 서한국 은행장과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 협약으로 한국조폐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전북은행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과 승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chak' 앱과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달 출시 예정인 군산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군산사랑 체크카드' 발급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농수산대 청년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임원진들과 '지속 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전북지부 이치훈 회장, 류호인 수석부회장 등 한국 미래농업의 주역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현황과 전망', '청년조합원 유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조합원 신규가입을 위한 출자금 납입 수준 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재호 본부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없이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음'을 강조하고,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더 나아가 청년조합원 유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